진짜 불가사의

(행13:13~52)

42.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진짜 불가사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진짜 불가사의'

여러분, 2007년 7월 7일에 신(新)세계 7대 불가사의 재단에서, 신(新)세계 7대 불가사의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이태리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그리고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의 높이가 38미터에 달하는 예수상이 있잖습니까? 또 잉카 문명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는 페루의 맞추픽추, 멕시코 마야문명을 대표하고 있는 치첸이트사 등등…
근데 따지고 보면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불가능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겠습니까?

뭐 수십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벽돌 만들고 쌓다보면 만리장성도 나오는 거고, 콜로세움도 나오는 거고, 아니 예수님 동상을 만드는데 38미터 높이로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불가사의한 일이겠습니까?
요즘 백 이삼십층 되는 빌딩이 더 불가사의 하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맨해튼이 불가사의하죠.
허드슨 강 건너편에서 맨해튼을 바라보면, 야경을 보든지, 낮에 보든지 불가사의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진짜 불가사의하고 오묘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전도입니다.
전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는 그 사실이 불가사의한 거라는 얘기에요.
도저히 생각으로 따라 잡을 수 없는 오묘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가 가능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일생을 거는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전도의 역사가, 전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 전도에 속도를 더하는데,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다시 육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출발했던 안디옥과 그리스반도 그 중간 지대에 해당되는 그 땅에 올라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전초기지였던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유대인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 하는 것과,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사의 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전부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새삼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

니다마는, 이방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전히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선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이 사실이, 이방인과 똑같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고, 이방인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불가사의 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게 옛날부터였지만, 이방인과 비교가 되니까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다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전도가 불가사의 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오늘 15절부터 41절까지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스테반 집사님과 베드로 사도가 전할 때와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집약이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 이 방식이 또한 베드로 사도와 스테반 집사님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역사를, 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흘러들어가게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2000년의 아브라함부터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언급되는데, 다윗은 나타나실 예수님의 표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불가사의 하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2000년 흘러온 이스라엘의 역사, 독특한 히브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유랑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십 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정착을 하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그리고 통일 왕국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면서 지내온 2000년의 역사, 너무 독특하게 히브리적인 거예요.

너무 독특하게 선민 이스라엘만의 문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태어난 선민 당사자들인 유대인들은, 그 역사의 완성되는 예수님의 사건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또 불가사의 한 것은, 2000년 동안 독특하게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형성해 왔는데, 그 역사의 완성으로서의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과 부활 사건의 예수님을, 왜 그 문화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한 촌이 됐다 그러지마는, 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문화와 문화의 이질성이 제거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른 문화를 다른 문화로 인정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이지, 이질성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외국에 가서 살다 보면 많이 나타나는 일이, 자식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배우자들을 선택하려고 그럴 때 부모와 충돌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필리핀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고민하는 신학교 교수를 제가 봤고, 또 인도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아들을 둔 한 의사 선생님의 고민을 제가 봤고, 흑인 남자와 사귀는 딸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를 봤습니다.
흑인 문화를 인정하고 인도 문화를 인도 문화로 인정하고, 필리핀 문화를 필리핀 문화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문화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마음의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질적인 하나의 문화인 히브리 문화 2000년 역사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2000년 역사의 결론인 예수님의 사건을 2000년 역사가 흐른 뒤에 태어난 당사자인 그 유대 자손들은 왜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게 불가사의 하다는 겁니다.
이 불가사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전도의 실제 현장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대답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48절 한번 열어 보실래요?
4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다음

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된 자는 다 믿더라.’
2000년 히브리 민족의 문화로 짙게 채색되어진 역사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진 이방인은 다 믿더라, 이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46절 보실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렇지요? 선민이니까 먼저 전합니다.
예수님도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아니 영생을 얻는데, 자기 자신이 영생이 합당하지 않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세상 천지에.
아, 영생을 얻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의 일이지만 어쨌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영생 얻기에는 합당 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왜? 선택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와 전혀 관계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선택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에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에 성공했다고 말하게 되는 근거와 이유가 바울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로 예정되고 선택되어진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의 언변 때문에 설득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 복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뛰어 넘어야 될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근데 이것을 뛰어 넘는 것이 또한 불가사의 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뛰어 넘을 수가 있을까?

못 뛰어 넘어요, 인간의 힘으로 못 뛰어 넘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제시될 때 어떤 장애가 앞에 놓이느냐?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오래 전에 썼는데, 복음이 제시될 때 그 문명의 충돌을 극복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느끼게 되는 문화적 쇼크, 문화적 충격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독특한 히브리 문화 2000년 역사의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제시되고 있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문화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도 다 달라요.
앞에서 봤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마술사 엘루마가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다 맡은 자기가 놓여 있는 지위와 신분이 있습니다, 처지가 있어요.
유식하고 무식하고, 여자고 남자고, 다 차이가 있어요,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근데 동일하게 제시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께서 복음이 제시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현재화하시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랑 같이 십자가에서 죽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자기계발서와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잘 살자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같이 죽은 자가 되자고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랑 같이 죽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죄인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세상에 대해서 잘 살자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죽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편한 거예요.
어차피 내 언변에 누가 설득돼서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집니까?
감동은 감동으로 끝나요, 물거품이 생겼다 없어지는 것처럼.
감동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너무너무 사무적이고, 객관적이고, 무미건조할 정도로, 선택을 받은 자만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대에서만 살자고 권면하십니다, 요청 하십니다.
하늘에 대해서만 살자!
이게 무슨 얘기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대해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듣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이라 기대 하지 말고 - 이게 죽는 겁니다.
오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천국으로부터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만을 찾고 구하면서 살자 - 이게 하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제로원복음방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날마다 이 세상에서 잘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세상에 보이고 만져지는, 정말 피부에 닿는 가까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천국으로부터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구하면서 살자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선택 받아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없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나타나든지, 또 하나는 왜곡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죄 사함의 근거가 되신다고 하니까, 죄 사함 받았다고 믿어버린 다음에, 죄 사함 받은 자로써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가속화 되고 더 강화됩니다, 죽어야 되는

데 왜곡돼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시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는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곡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은 다 순교였습니다, 순교!
집 잃고, 밭 잃고, 땅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하늘로만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곡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왜곡의 또 한 번의 현상,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부활절 전 고난주일에 듣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의 근성이 우리를 또한 지배하면서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경이롭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불가사의는 아닙니다.
진짜 불가사의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겠다고 그 주님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오직 천국으로부터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찾겠다고 결심하고, 날마다 그 결심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 이게 불가사의입니다.
세계 유일의 불가사의, 전도이지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듣기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알고, 그 감격을 감사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을 향해서만 살게 하시고, 그러한 온전한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